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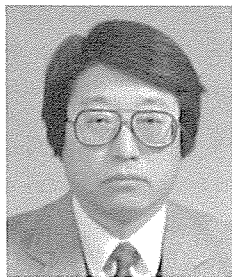
기 III 건축교육 이대로 안된다

기획

특

집

**건축質 향상 책임질 전문교육 절실
전문성 살릴 교육내용·과정 수립을**



李好璣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500여개 대학서 연간 4천여명 배출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 교육은 1945년 해방 이후에야 시작되어 지금은 전국 50개 이상의 대학에서 연간 4천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이렇게 4년동안의 건축 교육을 받은 많은 졸업생들이 그간 한국의 건설업계에서 많은 건축 활동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 교육 이념이 충실히 이행된 교육이었느냐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1970년대의 중동지역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인한 건축인의 활동의 요구와 1990년대의 다량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인한 많은 건축인들의 필요성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각 분야의 필요한 건축물로 인한 건설의 다양화로 건축

과 졸업생이 많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최소한의 건축 교육과정과 교과목으로 운영된 대학에서의 건축인 육성이 요청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화, 간소화에 의한 건축 교육 운영으로 인한 지속적인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더한 건축에의 질의 변화의 요구는 커져만 감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고도의 전문교육으로 고도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충족키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양적 팽창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전공

별 건축 교육으로 질적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둘째는 학생 대비 교수 수의 빈약, 대단위 학생의 대량교육 환경시설 부족으로 인한 질 높은 교육의 결여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soft)한 면과 하드(hard)한 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는 1945년 후 현재까지 변화되지 않은 교과과정과 운영시스템(System)에 의한 건축 교육에서 탈피되어야 한다. 넷째는 새로운 재료, 시스템, 설계 개념, 장비와 기술 등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섯째는 현재 이뤄지는 전공교육 외에 주변 학문을 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성이 실제화 될 수 있어 전문성을 폭넓게 수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세계화되는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과 운영과의 연대화가 가능한 산학협동체제가 갖춰질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는 이러한 모든 것이 시행되기 위한 건축의 사회적인 위상과 건축 교육의 독립된 운영체제의 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건축 교육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건축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므로써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건축 교육의 변화를 기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목표는 "제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고 아울러 인격 도야와 건전한 사상을 함양하여 나라의 중흥에 기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전인교육으로의 전문인 육성과 전문인과 사회지도자 육성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비해 건축 교육의 목표는 건축

의 예술적 측면과 기술공학적 측면이 모두 도모되어야 하는 전문가 육성이라는 것과 교육과 실무 현장의 교육과 실무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목표 이행이 4년의 제한된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수 없는 공상적인 전문성 불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건축 교육은 일반인(Generalist)만 양성하고 전문인(Specialist)은 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건축 관련 분야가 다양해지고 세분화, 전문화되는 것에 맞추어 각 분야별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하에서 새로운 교육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교양적 건축지식 습득으로 교육받은 졸업생들은 각자의 전문분야 선택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우스운 일이 되고 말았다.

확고한 각자의 전문분야 선택은 대학 교육의 결과이고 의무이다. 그러므로 건축 교육목표의 설정이 뚜렷한 대학교는 그대로의 특성화를 가질 것이고 정통성을 찾아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4천여명 졸업생이 모두 건축 일반인으로 나온 이들이 이행하는 우리나라의 건축의 질은 불문 가지이다. 이렇게 되므로 대학 건축 교육은 버려지고 하나의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현장 실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은 극히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대학교육이 개론습득에 그쳐

현재의 교육목표로 인한 교육 내용은 너무나 단시간에 많은 과목을 이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한 과목당 3학점 3시간의 이수 밖에 할 수 없다. 구조 분야에서 6과목을 이수하고 도시 조경 분야에서 4개 과목, 환경공학 분야에서 2과목, 재료 시공 분야에서 3과목,

건축계획 설계분야에서 8과목에서 10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총 20과목을 4년 동안에 공부한다는 것은 각 학문의 개론적인 습득에만 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저학년에서는 교양과목을 60~7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실제 4년이라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수학 기간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축공학(학)과가 공과대학 내에 있으므로 모든 운영체제나 학점 인정 한계와 교양과목의 선택도 타학문의 공학적인 측면에서 통일된 편제와 운영기준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건축공학(학)과적인 특수한 면에 대한 배려, 즉 교양과목도 건축의 기초적인 분야와 연계된 인문 사회적인 측면과 기술 과학적인 측면의 과목을 선정하여야 되는데 이와는 전연 무관한 교과목이 선정되어지고 이를 강압적으로 이수하여야 되는 모순적인 틀 속에서 교육되어진다.

이러한 교과과정은 실제 사회에서의 현상이 고도의 전문성에 의해서 건축이 설계되고 시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전문인을 요구하는 실정과는 큰 괴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전문성에 따른 교과목의 분리, 전문과목의 집중적 이수과 타 분야의 선택적 이수를 개론적 보충 등의 교과과정의 편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극히 어렵고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여러 현상에 비춰서 볼 때 몇 개의 단계적 발전 모형을 정립하여 실행함이 바람직하다.

첫번째 단계로는 계획설계분야와 기술공학적인 분야로 교육하되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고 필수과목을 줄여서 각자의 전문성에 맞추어 교육을 받으며 두 번째 단계는 계획설계분야와 기술공학

분야로 그 전공을 나눠서 시행하고 각 분야별의 전문 교과목 수를 늘리고 이수 학점 수를 늘린다. 그리고 타 분야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여 넓은 기초적 지식을 얻게 한다. 이 단계의 건축 교육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과대학 내의 한과로써의 위치보다는 건축 학부나 건축 대학으로의 독립된 운영체제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로는 건축분야를 크게 분류하면 계획·설계와 기술분야로 분리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전문성에서는 너무 크게 구획된 것에 불과하므로 더 세분화된 전공 영역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건축 계획 설계 분야, 건축 구조 분야, 건축 환경공학 분야, 건축 재료 시공 분야, 도시 조경 분야, 건축 실내 설계 분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 분야는 같은 건축 영역에 있지만 상당한 전문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한 전문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각 분야를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이 모두를 하나로 묶은 전문인 육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만들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를 향한 우리나라 대학의 건축 교육을 각분야의 전공을 만들어 각각의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타분야의 과목을 열어 놓고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건축 전반의 기초적 틀을 각자가 구축하면서 자기에 맞는 전문성을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대학 내에 (예, 건축대학) 각 전공이 놓여져야 하며, 타 대학의 운영 시스템에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환경 조건은 교육의 방법이나 질을

높이는데 필수 조건이다. 특히 실험, 실습, 실기, 전시, 컴퓨터실, 세미나 등이 많은 건축 교육은 이에 따른 공간과 환경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실은 보잘것이 없다.

이뿐 아니라 설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대학시설은 1960년대의 사회의 건축 환경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여름에 실내 온도가 36℃를 오르는 가운데서의 연구성과들을 기대하는 것이라든지, 겨울에 0℃ 이하의 설계실에서 작품을 하는 환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 시설 환경에서 훌륭한 연구와 교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모두는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대학의 인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수준 평가척도는 그나마 대학의 인적 구성 여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살펴 보면 이에 대한 평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인적조사(조사대상 대학 평균수치)

학생	교수	조교(유급)	석사과정	박사과정	시간강사
284명(219명)	7.4명	1.83명	13.89명	6.17명	6.72명

* 학생 수의 ()안은 1학년을 제외한 2,3,4학년 학생수.

* 박사 과정의 학생 수는 학위 과정이 있는 학교의 평균치임.

교수 1인당 학생 36명 정도이지만 이도 역시 타국에 비하여 1/3 ~ 1/4 수준도 안된다. 이러하다 보니 각 전공 분야별 교수도 배당이 안되는 과목도 많다.

또한 각 전공별 교수-학습 방법의 특성상 소단위의 학생 대 교수가 필요하며, 학습단위의 규모도 과목 특성으로 나뉘어야 하며 시간수도 이에 따라

정하여져야 한다. 실기 위주의 과목은 소단위의 학생과 많은 시간수의 배정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 교육을 위한 적정 인적구성이야말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수준, 국민의 의식 구조 등이 발전되며 세계로의 교류와 한국인의 위치가 날로 상승되어지는 때이기도 한다. 더욱이 한국의 건설 시장이 외국 선진국에게 풍부한 조건으로의 매력을 끌고 있는 때에 UR의 개방과 더불어 선진국의 건축에의 발달된 기술과 예술이 그대로 상륙하여 모든 부분에서 한국 건축가와 대등한 자격으로 경쟁되어야 할 상황에 도달했다. 더 좋은 건축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계 건축인 모두가 같이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이 그동안 보호받으며 우리끼리의 경쟁 시대와는 전혀 다른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부터

대학 교육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시작해서 10년이 경과되어야만 효과가 있을진대 이상에서 논하여 온 여러 문제의 방향성이 이제는 실현되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말없이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단지 이를 실현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 문제점을 볼 때 현재의 건축 교육으로는 50년 전의 현실에 맞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를 향한 전문인을 육성하는 교육 내용, 환경, 과정 조직, 운영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건축 교육은 건축공학(학)과의 독립된 운영과 조직 체제 내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내용과 교과과정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는 시설 환경의 개선과 인적 구성원의 합리적 배려가 뒷받침되며 사회에서의 건축의 위상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과 의식의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건축 교육이 이대로 되어 간다면 한국의 건축계는 낙후된 분야로써 선진국의 뒤에서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는 사태가 오고야 말 것이다. ㉞

고도의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체제를 갖춘 건축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축계에서 10여년 전부터 주장하여 1990년도에는 한국 대학 교육 협의회 주관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한 보고서(본인의 2인 공동 연구)가 나왔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